한-미 FTA 원천 무효화, **국회비준 저지**가 근본 대책

4월 18일 개최된 한-미FTA 농대위 긴급토론회 모습

4월 2일 타결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결과, 118개 세부항목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95개 항목에서 미국측 요구안이 그대로 관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미 FTA가 양국의 균형발전이라는 애초 목적을 상실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협상 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농업부문에서 나름대로 선방했다느니, 협상 점수를 매기는 등 350만 농민의 좌절감은 아랑곳 않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다. 전 농산물에 대해 사실상 전면 개방이라는 미국측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한국 농업의 피해가 명확해지고 있다.

사상 유례없는 농업개방 신기록(?!) 수립

애초부터 농업의 피해를 예상하고 시작한 한-미 FTA 협상이었다. 정부는 협상 목표 중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를 하겠다고 했으나, 쌀을 제외하면 양허 제외 품목은 없었다. 그러나 쌀은 WTO 협상에서 2014년까지 유예를 받았으므로 애초부터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대상이 아니므로 결과적으로 쌀을 지켰다고 할 수도 없다.

식용 대두, 식용 감자, 분유, 천연꿀 등 4개 품목은 현행관세를 유지했으나 쿼터 물량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므로 사실상의 개방 확대나 마찬가지다. 관세 즉시철폐 품목은 한-칠레 FTA 당시 15.6%(224개)인데 비해, 한-미 FTA에서는 1,531개 농수축산물(HS 10단위) 가운데 37.6%인 576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수입액 기준 55.4%)라는 '사상 유례없는 개방 신기록(?!)'을 세운 것이다.

과거 FTA 협상과의 비교 (단위 : 품목-HS 10단위 기준. %)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한-아세안	한-미
관세철폐 예외	412(29%)	484(33.3%)	956(65.8%)	448(30.9%)	30 (1.9%,오렌지 제외)
즉시철폐	224(15.6%)	232(16.0%)	204(14.1%)	533(36.8%)	576(37.6%)

협상 쟁점과 문제점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농산물세이프가드(SSG) 도입, TRQ 관리방식 등에 합의했으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소득이라고 한다면 SSG의 존속기간을 몇 개 품목에 한해 2~3년 연장한 정도에 불과하다.

한-미 FTA 쟁점사항 관련 협상 결과와 문제점

쟁 점	결 과	문 제 점
TRQ 관리방식	국영무역방식 포기	국영무역은 생산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정부 스스로 그 조치를 해제
세이프가드	순차적으로 하락	세이프가드가 일부 품목(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에 한해)에 한해 '관세철폐 후 최장 3년'만 발동할 수 있음
쇠·돼지고기 원산지 기준	도축국으로 합의	캐나다·멕시코에서 태어나 기른 소도 도축만 미국에서 하면 미국은 해당 쇠고기를 관세 혜택을 받으면서 한국에 팔 수 있게 됨
유전자변형 농산물 검역	안전성 검사, 수입승인 절차 간소화 혹은 생략	국민의 식품 안전문제와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
지역화 조건	검토 중	AI(조류인플루엔자), 광우병, 구제역과 등 가축 질병에 대해서 검역 체계 허점이 생김. 국민들의 위생에 심각한 위협 초래
쌀	찐쌀 수입	· 현행 가공품으로 구분된 찐쌀 수입 · 관세치는 미발표
감귤	계절관세(30%) 도입	· 오렌지 물량의 6%인 2500톤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물량으로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음 · 3월부터 8월까지 생산 출하되는 한라봉, 하우스감귤 등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됨
쇠고기	뼈를 포함한 전면수입 예정	5월에 국제무역사무국의 등급판정 있으나, '광우병 통제가능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전면적 개방이 이뤄지게 됨

협상 결과에 따른 예상 피해액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피해 규모는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생산액 감소치를 중심으로 추정한 반면, 민간 전문가들은 품목별 피해에 따른 관련 산업의 피해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국책기관의 경우 관세유예를 최장 10년으로 가정하고 분석을 실시했으나 일부 품목은 유예기간이 이보다 길다. 이 때문에 정부는 피해액을 당초 제시한 것보다 적은 연간 8,0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고위 관료들은 국책기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예상 피해액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생산액 감소만으로 피해를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액 감소는 물론, 사료·농자재 등 관련산업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농축협 사업기반의 약화, 이농 증가로 인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쇠퇴, 농산물 대체소비로 인한 피해, 농지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자산 축소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액은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DDA 농업협상이 재개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농업 개도국 지위 확보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농업국가인 미국과 FTA를 추진하면서 DDA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는가? 이에 따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 농업총소득은 8조 3천억이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추산한 한-미 FTA 농업부문 피해액과 협상결과(단위 : 억원)

품 목		10년 철폐시	협 상 결 과
축산	쇠고기	2,214	· 15년 철폐, 6개 세번 SG 적용
	돼지고기	1,352	· 냉장육(삼겹살, 갈비, 목살 등)2개 세번은 10년 철폐 · SG 적용, 여타 세 번은 2014년에 철폐
	닭고기	708	· 10~12년 철폐
	사과	605	· 후지 20년 철폐(23년 SG), · 기타품종은 10년 철폐(10년 SG)
과일	배	195	· 동양배 20년 철폐, 기타 품종 10년 철폐
	포도	414	· 성출하기(5월~10.15)17년 철폐 · 비출하기(10.16~4월말) 24%에서 시작 5년철폐
	감귤	341	· 15년 철폐
	복숭아	98	· 10년 철폐
곡물	대두	1,090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터 제공
	감자	25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터 제공 · 칩용감자는 계절관세 적용 후 철폐
	보리	772	· 15년 철폐, 수입쿼터 제공
	맥주보리	207	· 15년 철폐, 수입쿼터 제공
	옥수수	1	· 사료용 옥수수 즉시철폐
채소 및 특작류	양파	19	· 15년 철폐, 18년 SG(세이프가드)
	고추	52	· 15년 철폐, 18년 SG
	마늘	26	· 15년 철폐, 18년 SG
	인삼	55	· 수삼, 홍삼, 백삼 등 7개는 18년 철폐. 20년 SG · 여타 품목은 15년 철폐, 18년 SG
	딸기	33	· 9년 철폐

민간 전문가의 한-미 FTA 품목별 협상결과 피해액 예측

품 목	예상 시나리오	피 해 액
한 우	강원대 이병오 교수 '쇠고기산업의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현행 40% 관세가 15년 뒤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피해액 예상	최소 2,680억원 (직접피해 1120억원, 간접피해 1516억원) 최대 2조 7,025억원 (직접피해 1조1288억원, 간접피해 1조5737억원)
양 돈	김민경 건국대 교수 '한미FTA협정이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현행 25%관세가 10년 뒤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피해액 예상	최소 8,243억원 최대 1조 869억원 (사료 및 동물약품 관련산업 피해액 제외) 합산했을 경우 더 큰 피해 예상
낙농품	조석진 영남대 교수 '낙농육우협회 연구용역 보고' 현행 36% 관세가 10년 뒤 무관세로 수입될 경우 피해액 예상	최소 1조 3,395억원 (소비자가격 기준) 최대 1조 7,554억원 (소비자가격 기준) – 낙농육우협회 성명서에 의하면 국내산 유제품 소비감소 7천억원~9,100억원

품 목	예상 시나리오	피 해 액
감 귤	제주대학교 연구용역 15년 뒤 관세철폐 예상	10년간 7,686억원 (연간 768억원) 감귤 관련산업까지 합산할 경우 10년간 총 8,948억원
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관세 10년 단계 철폐시 피해액	1,090억원
감 자	관세완전 철폐 예상 피해액	정부기관 : 250억원 생산자조직 : 500억원 이상
사 과	10년간 단계적 철폐시 예상 피해액	정부기관 : 605억원 산지 : 1,000억원

DDA 농업협상으로 인한 농업총소득 감소(발효 후 10년간 누적액, 단위 : 억원)

구분	축산	과일	채소	기타	합계
개도국(A)	+1,240	8,840	26,250	64,490	98,340
선진국(B)	30,320	40,610	76,010	34,330	181,270
비교(B-A)	31,560	31,770	49,760	30,160	82,930

주 : G20(농산물 수출 개도국 그룹)의 개방 요구안을 기준

자료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피해 대책...협상 전면 무효화만이 근본 대책이다!

협상 전문이 공개되고 않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추산 등이 나오지 않아 피해대책을 논하는 것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 협상피해에 따른 대책이 명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대책은 크게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 축산 시설화, 브랜드 육성, 기술력 향상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미 FTA의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UR 협상 이후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정방향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소득보전을 하면 농가소득에 큰 피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미 쌀에 대한 소득보전직불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쌀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이로 인한 농가소득 피해액이 1조 7천억원(2003년 대비)이나 되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농민이 원하는 최고의 대책은 한-미 FTA 타결을 원천 무효화하고 국회비준을 저지하는 것이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가 4월 18일 한-미FTA 농대위 토론회에서 "사상 유례없는 농업개방 신기록 수립(?!)"이라고 한-미FTA 타결 결과를 평가했다